국내 '엠폭스' 확진 환자 2명 늘어…누적 8명

최근 3명 모두 국내 전파…"추가 발생 차단에 주력"
6번째 환자 36명과 접촉…접촉자 의심증상 보고 無
당국 "6번째 환자 '익명' 감염원 추적중…시간 소요"

국내에 엠폭스(MPOX·원숭이 두창) 확진 환자가 2명 더 늘어 8명이 됐다.

최근 발생한 3명의 확진자는 최초 증상 발현 전으로 해외 여행력이 없어 모두 국내 감염으로 추정된다.

지난 7일 확진된 6번째 확진자는 감염원으로 추정되는 사람과 익명으로 접촉해 역학조사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사례 간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모두 첫 증상 발생 전 3주 이내 국내에서 감염원과의 밀접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12일 오전 충북 오송 질병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6월 22일 국내에서 엠폭스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총 8명의 환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국내 7번째, 8번째 엠폭스 확진 환자가 각각 10일, 11일에 추가로 발생했다. 7번째 환자인 내국인 A씨는 지난 10일 발열 등 전신증상과 피부병변으로 의료기관에 내원해 같은 날 유전자 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받았다. 8번째 환자인 내국인 B씨는 지난 11일 오한과 피부병변으로 보건소로 스스로 신고해 유전자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됐다.

임 단장은 "최근에 발생한 6번째~8번째 확진자는 이전 확진 환자들과는 달리 최초 증상 발현 전 3주 이내에 해외 여행력이 없어 모두 국내 감염으로 추정돼 감염경로 등에 대한 상세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역당국은 지자체와 협력해서 환자의 전염 가능 기간 동안의 동선과 위험 노출력에 대한 지역사회 심층조사를 시행하고 신속한 감염원의 조사 및 접촉자 관리로 추가 환자 발생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7일 확진된 국내 6번째 엠폭스 확진자 C씨는 역학조사에서 총 36명과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C씨와 접촉한 36명은 고위험 3명, 중위험 23명, 저위험 10명으로 현재 노출위험도에 따라 방역 당국이 관리하고 있다.

현재까지 관리 중인 접촉자 중 의심증상을 보고한 사례는 없다. 고위험 및 중위험 접촉자를 대상으로 노출 후 예방접종 의향을 확인했으며 아직 접종한 대상자는 없다.

C씨는 현재 격리병상에서 입원 치료 중이며 추가 증상 발현 없이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C씨는 해외 여행력이 없었으며 첫 증상 발생 전 3주 이내 국내에서 감염원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밀접 접촉했다. 이에 관련 기관 협조를 통해 감염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임 단장은 "C씨가 감염원으로 추정되는 분을 익명으로 만나, C씨도 상대방의 이름, 연락처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인터넷 ID 등을 통해서 감염원을 추적하고 있지만 시간은 어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해외 유입 확진자 추이와 관련해서는 "예전에 미국이나 유럽에서 환자 발생이 많았는데 현재는 많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에 일본이나 대만과 같은 우리나라의 인근 국가에서 발생이 많아지고 있다"면서 "주변 국가의 발생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임 단장은 지역사회 감염 가능성 여부와 관련 "감염원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되어야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외국에서도 지역사회 내에서 전파가 이루어지는 것을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도 지역사회에 일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엠폭스는 원숭이두창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 발진성 질환이다. 엠폭스는 치명률이 0.13%, 중증도는 1% 미만으로 낮고 특별한 치료 없이도 대부분 2~4주 이내 자연 치유가 된다는 게 방역 당국의 설명이다.

임 단장은 "호흡기로 전파되는 코로나19나 메르스 등과는 달리 엠폭스는 특성상 성접촉이나 피부접촉 등 밀접접촉이 없는 일반 인구집단에서의 대규모 전파 가능성은 낮다"면서 "충분한 경계는 필요하지만 과도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당국은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의 자발적인 검사 참여와 의료계의 조기 진단 의뢰 등을 통한 확산 차단에 협조를 당부했다.

임 단장은 "금주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엠폭스의)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조정하는 것도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유나기자

광주 발달장애인 부모 "인간다운 생활 위한 지원 재점검을"

"위기발달장애인쉼터 폐쇄 등 우려 이어지고 있어"

광주장애인부모연대는 12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시를 향해 관련 지원책 재점검을 촉구했다. (사진 = 광주장애인부모연대 제공)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광주시를 향해 관련 지원책 재점검을 촉구했다.

광주장애인부모연대는 12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발달장애인도 시민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단체는 "최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발달장애인 가족 433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26.3%는 하루 20시간 이상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며 "실제 20시간 이상의 서비스를 지원받는다고 답한 응답자는 0.1%에 불과한 데다 응답자의 59.8%는 극단적 선택을 고민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조사는 실제 비극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발달장애인 가족을 살해하고, 본인도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회적 타살 사건은 13건에 이른다"며 "발달장애인 영역은 다른 영역과 다르게 장애정도와 관계없이 평생에 걸친 사람에 의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광주시는 지난 2020년 성인 발달장애인 모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 등을 계기로 이듬해부터 전국 최초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 융합돌봄사업을 벌이고 있다"며 "그러나 오늘날 위기발달장애인쉼터가 폐쇄되고 사업 중복이라는 이유로 주거체험과 긴급돌봄센터는 사라졌으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내 전환지원팀은 전원 해고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여러 문제에도 광주시는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내 아이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병원과 시설을 전전하거나 비극적인 선택을 하게 될까봐 두렵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강기정 광주시장의 광주다움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적극 응원하고 찬성한다"며 "강 시장이 주장하는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하도록 우리의 요구에 응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회견을 마친 단체는 광주시에 ▲발달장애인 주거 서비스 확대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사업 구체적 계획 수립 ▲발달장애인 지원 전문관 배치 등 내용이 담긴 제안서를 전달했다.

김재환기자

경기적십자, 강릉 산불 이재민 지원 구호품 점검 12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에서 직원들이 강릉 산불 피해 이재민 지원에 대비해 구호물품을 점검하고 있다.

설 연휴 중 어머니 둔기 살해 40대에 20년 구형

검찰이 올해 설 연휴 첫날 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정영하 부장판사)는 12일 201호 법정에서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1월 21일 오전 1시께 광주 북구 한 공동주택에서 함께 살던 60대 어머니 B씨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법정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과 보호 관찰 5년을 구형했다.

검사는 A씨의 죄책이 무겁고 피해를 돌이킬 수 없는 점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정신 질환 치료를 받아온 A씨는 수사 과정에 "환각 증상 직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의 법률 대리인은 심신 미약 상황을 양형 사유로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26일 열린다.

이슬비기자

여수소방, 고락산 일대 산불 예방 캠페인 실시

여수소방서(서장 이달승)는 지난 11일 여수시 고락산 일대에서 산불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여수=김현근기자

담양소방, 외국인 근로자 대상 소방안전교육

담양소방서(서장 박상래)는 봄철 화재예방대책 기간 중 대형 공사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소방안전 교육을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담양=박종영기자

진도소방, 관서장 봄철 공사장 화재예방 지도 점검

진도소방서(서장 김광선)는 지난 11일 진도읍 공립 노인요양시설 공사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진도=조상용기자

광주 동부소방, '안전하기 좋은 날' 홍보캠페인 실시

광주 동부소방서(서장 송민영)는 지난 12일 오전 학동 아이파크 및 산수시장, 노벨요양병원 3곳을 방문하여 자율점검 '안전하기 좋은 날'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슬비기자

광양경찰, 협력단체와 범죄예방 위한 합동순찰

광양경찰서(서장 정재봉)는 최근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들뜬 분위기에 편승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범죄 분위기를 사전 제압하기 위해 민·관 합동 야간순찰을 실시하였다.

광양=김현근기자

광주지방보훈청, 드론 전문가 양성과정 성료

광주지방보훈청(청장 정홍식) 제대군인지원센터는 지난 7일 ㈜허니에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해 '드론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가자격증, 드론지도사 과정'수료식을 가졌다.

김재환기자